

동부권 지역발전 '맞손'

전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 개최, 발전사업 15개 시행계획 심의·의결

전북도는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부권 관계 실·국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및 연장·확대 추진 보고와 시군별로 2019년도에 추진할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동부권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된 2019년 동부권사업은 식품 7개, 관광 8개 등 총 15개 사업(신규2, 계속13)으로 총402억원(국특198, 도비102, 시군비199, 자부담3)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으로는 남원의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에 62억원을 순창의 '건강장수식품기반 웰드푸드 사이언스관 구축사업'에 40억원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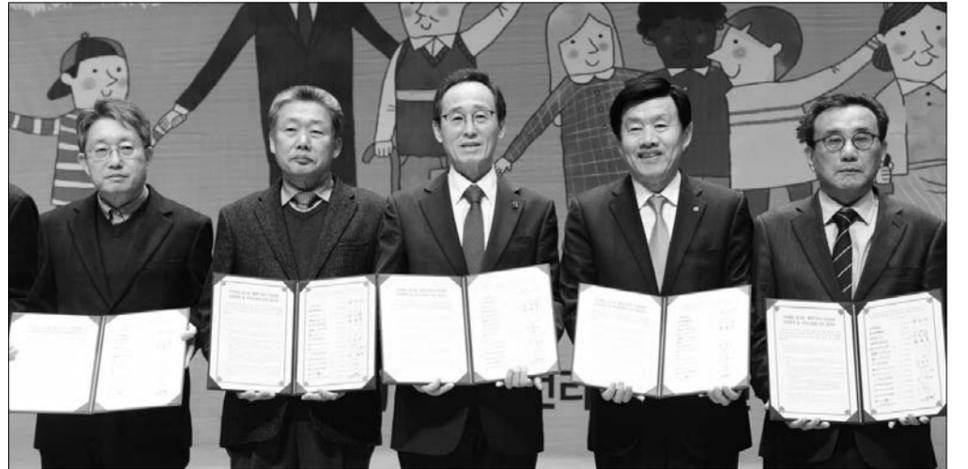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은 돌담길 로 맨틱벤처조성, 포토존 조형물 설치, 여행트래일설치, 관광투어 주변 경관 조성 등을 통해 관광투어를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2,278억원을 지원, 3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식음분야에서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 관광분야에서는 관광투어, 마이산,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낙후된 동부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종료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 7기 공약과 연계하여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과 2021년부터 매년 360억(총3,600억)확대하기로 했다.

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를 통해 동부권 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군에서는 2019년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기업, 출연 기관 인권문화 컨벤션 개막식 및 인권경영 협약식이 29일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도시 전북 구현'

전북도, 인권문화 컨벤션 개최... 경영 이행 협약 체결

전북도가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2018 인권문화 컨벤션 개회식을 열고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신양균 전북인권위원장 및 도내 인권단체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여 유공자 표창,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 공기업 출연기관 인권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인권증진 표창대상자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TF팀 활동유공자를 선정했다.

2018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시, 에세이분야 '솔뚜껑', 포스터분야 '지구촌 한가쪽' 등 총 4개 분야 18

점에 대해 시상하고 작품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도내 15개 공기업 출연기관장과 인권경영 이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업 출연기관이 2019년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이행을 통해 기관내 종사자 뿐만 아니라 도민인권 보호에 나서게 된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주관 '지방정부 인권제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권교육 방향'이란 주제로 신양균 전북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발제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박정교 변호사, 정영선 교수,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최낙영 소장, 홍정훈 변호사 등 참여한 토론을 통해 전라북도와 인권제도, 인권정책,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영화제는 29일 개막작 '폴란드

로 간 아이들'을 시작으로, 30일 '손으로 말하기까지', '창백한 얼굴들', 12월 1일 '폴란드로 간 아이들' 재상영, '당동' 및 정태희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29일과 30일, 2일간 도청공연장 1층 로비에서 도내 주요 인권 관련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홍보 및 체험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작품전시 및 인권상담, 인권관련 OX퀴즈, 노인유사체험, 성인권홍보, 인권침해 신고전화안내 등 도민이 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화의 평등 사상을 꽃피운 전북도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인권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장애인과 아동,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에 함께 하자"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시민재단 설치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장, 전주9)의원이 29일 전북시민재단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확인된 광장민주주의의 힘을 일상민주주의로 옮겨가 전라북도 내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코자 하는 첫 걸음으

로 류한호 (사)광주시민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광주시민재단과 광주 NGO센터 운영사례'를 주제로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청취, 이어 국주영은 위원장이 준비한 '전라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제정과 시민재단 설치를 위한 사항을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깨어있는 시민을 교육하고 그들의 욕구를 담아내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도의원 내년

의정비 2.6% 인상 결정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의정비 심의위를 통해 내년 도의원의 정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12월 2차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올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 이번 인상안을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이견없이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특히 2020~2022년 의정비는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안을 적용하면 도의원 월정수당(연간)은 올해 3511만원에서 내년 3603만원으로 오르고 총 연봉은 5311만원에서 5402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상 결정은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부산시의회의와 경남도의회, 목포시의회 등 일부 타시도의회의 경우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등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여성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평화당 전북도당 정책토론회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희) 홍성임 전북도의회 의원은 29일 전주시 소재 오즈하우스 로제타홀에서 여성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리더 초청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들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라북도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회를 통해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북여성 리더들은 주최자인 홍성임 의원의 '전라북도 여성정책 현황', 전북여성단체연합 임양순 회장의 '여성단체들의 현실과 대안', 조덕이 전 우석대학교 교수의 '6차 산업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김윤자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부회장의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복지정책 및 대안'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한 서선녀 전북교육문화센터 수석팀장은 '여성회관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해선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지역아동센터 부모와 아이들의 문제', 한옥진 여성일자리센터 취업지원팀장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 발전방향', 정연화 노인종합복지관 생활관리사는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의 문제점과 대안', 서진숙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은

'전라북도 다문화 정책의 발전방향', 김경자 전북여성유권자연맹은 '지방선거와 여성', 조경옥 여성정치연구소 박씨는 '전라북도 일 가정 양립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약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라북도 여성 리더들은 수 많은 여성들이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양성평등을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복지수혜자들 또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은 수혜자의 관점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정책 획일성이 문제라며 좀 더 효율적이고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맞춤형 정책 사업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반적인 여성관련 정책들을 전북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여성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명옥 민주평화당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교육문화위원장이 참석하여 민주평화당의 여성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장덕상 사무처장, 이경희 전북도당 여성위원장, 김병용 전북도당 조직국장, 민소인 총무부장 등이 함께 자리하여 행사를 지원했다. /김진성 기자

천년을 이어온 전북방언 정리되다

도, 사전 편찬사업 마무리

1만1640개 어휘 확정

천년을 이어온 전북의 역사와 열이 서려 있는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이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진행해온 전북 방언사전 편찬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방언 편찬사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전북방언이 가장 적게 실려 있는 현실에서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전북의 언어생활을 종합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사전 편찬 방법 및 집필 확정, 집필어휘를 선정하여 1,500개의 방언에 대한 시범집필을 했다.

올해에는 지역별, 문학작품별, 품사

별 등 균형 있게 선정하여 총 1만 1,640개 어휘를 확정하고 사전 집필 작업을 마무리 했다.

전북방언은 소리가 부드럽고 뉘소리가 별로 없는 게 특징이며, '집~나게(매우)' 등과 같이 늘어 빼는 가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모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센 발음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마무리된 전북방언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형'과 '하위 방언형'으로 분류하여 집필했다는 점이다.

표준어의 '개구리'를 예로 들면, 이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방언은 '개고리, 개고라지, 개구라지, 개구래기, 머구리' 등 다양한 어휘가 쓰이고 있다. 이들 중 형태가 비슷한 어휘들끼리 묶어 원어를 대표형으로 삼고 그 밑

에 하위방언형을 표기하도록 했다. 가령, '개구라지'를 대표형으로 본다면, 비슷한 어휘의 '개구라지', '개고라지' 등이 하위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마무리된 전북방언 편찬사업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사전을 발간하여 200여개의 공공기관, 각종 교육 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북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의 형태로 등재하고 아울러 도민의 의견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 운동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역마다 방언의 가치는 바로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열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찬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소중한게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순창군 공고 제2018-782호

산지구분도안 공고(안)

「산지관리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일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08. ~ 2018. 11. 22(14일간)
2.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일람장소: 순창군청 홈페이지
4. 관계도서: 개계장방
5. 의견제출: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을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속 국유림인 경우에는 전라북도정읍국유림관리소로 산림청 소속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순창군청 산림공무원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녹음도면 등
6.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일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과 ☎(063-650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8. 순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